

만남



대안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5 2025
통권 614호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어린이들의 순수한 웃음과 밤랄한 표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 희망을 줍니다. 아이들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유승현 집사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5월
목회력

02 금 ·연합권찰모임

04 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유아세례식, 찬양예배 성찬

11 주일 ·가족주일 특별예배, 제직회

16 금 ·심방준비회

18 주일 ·교육주일 특별예배

25 주일 ·사회봉사주일

03 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12 월~ 14 수 ·포이메네스 사모영성수련

17 토 ·영락가족운동회

23 금~ 25 주일 ·청년선교비전

만남

2025년 5월호
통권 614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꽃잎을 보내듯이 김운성

특집 I 가정이 희망이다

- 04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길 최재선
- 06 가정은 신앙의 대 잇는 ‘메인 스쿨’ 백홍영
- 10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양복희
- 12 말씀에 순종하는 삶 김대준
- 16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지현

특집 II 건강한 교회학교

- 18 가정과 교회 하나되어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흥지연
- 20 교사란,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자리 우예인
- 22 쌤 덕분에 ‘존경’을 알게됐어요 이민하
- 24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 유원진

특별 기고

- 26 다음세대를 위한 『새한글성경』 대한성서공회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 30 영락보린원의 기원 박명수

만남 그리고 사람들

- 33 老권사님들의 훈훈한 이야기 이재향
- 36 번아웃된 나를 위로한 물음 “어디 아파?” 고창균

땅끝까지 이르러

- 38 네팔 갓난아기, 한국 대학생 되다 장이삭
- 40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모세

청년광장

- 42 부부청년회에서 얻는 성장의 은혜 김지형
- 44 유튜브 영상 만드는 순수 청년들 김대준

영락의 올타리

- 46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최 인
- 48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산상기도회 인 미
- 50 예배 중 심정지… 골든타임은 5분 이명춘

교회소식

- 52 부활절예배 외
- 56 폴 세잔의 ‘키친 테이블’
- 57 새아기·새가정…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꽃잎을 보내듯이

김운성 위임목사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24)

봄이 가고 있지만, 바빠서 꽃구경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가며 면발치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쁘다는 것은 평계요, 꽃들 앞에 설 여유를 만들지 못한 게으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꽃샘추위와 함께 바람이 많이 불 것이라는 날씨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날 연약한 꽃잎이 다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밤새 아쉬웠습니다.

며칠 전 잠시 틈을 내서 산책하다 보니, 흙과 꽃잎이 절반씩이었습니다. 꽃잎이 이렇게 많았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봄마다 만드시는 꽃잎의 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꽃잎을 기꺼이 놓아 보내는 나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때가 되었을 때 더는 붙잡아 두지 않고 놓아 보냅니다. 멀리 날아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속삭이는 것처

럼 느껴졌습니다. 나무가 마음을 비움으로 꽃잎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 황홀한 세상을 만듭니다.

놓아 보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말하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입니다. 그러므로 하와 없는 아담은 갈빗대 없는 남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할 때 서로 완전해집니다. 서로를 완전하게 하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아담과 하와가 꽃 피는 봄에 데이트를 즐겼으면 합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일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대고 웃는 청춘 남녀의 모습은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 사랑이 짹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

마 후에는 멋진 신랑과 고운 신부가 되어 예배당 안에 섰으면 합니다.

주례할 때마다 양가 부모님을 봅니다. 언젠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신부 아버님이 얼마나 우시던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모두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사위가 딸 도둑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놓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무가 꽃들을 놓아 보내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놓아 보내는 마음, 이것은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놓아 보내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는 멋지고 늠름한 사위를 보며 섭섭함을 달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곳은 죄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은 딸을 사위에게 보내는 마음과는 비할 수 없는 고귀한 마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놓아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능력과 권세를 다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것을 다 놓으시고, 그 대신 고통과 멸시와 십자가의 수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자주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자주 불러 모으곤 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말

나무가 꽃잎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놓아보내는 건 하나님의 창조질서

떨어져도 신앙의 DNA 있으면 충분
가정 내 있을 때 믿음 양분 많이 줘야

했습니다. “우리 집처럼 자주 모이는 집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하는 가족도 없을 거야” 저희는 자주 모여, 비밀 없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딸과 아들이 결혼하면서 저도 놓아 보냈습니다. 때론 섭섭할 때가 많지만, 그래야 한다고 마음먹습니다. 남은 두 딸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더 아름답게 살도록 보내야 할 겁니다. 기도로 마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도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벚나무에서 떨어진 잎이 개나리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멀리 가도 믿음의 부모 안에 흐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DNA만 그대로 가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부모가 천국에 가도, 믿음으로 살 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기 이익과 하나님 영광 사이에 섰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선택 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직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의 양분을 많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릴 때, 가정 안에 있을 때, 아직 부모 말을 청종할 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으며 ‘놓아보냄 속에 흐르는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날**

'성경적 가정'을 회복하는 길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는 인류의 시작을 설명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형을 만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에덴동산 최초의 가정, 첫 번째 가정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은 더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공유하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함의 은혜, 더불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가정 공동체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에덴동산 안에 머물러 있던 아담의 가정은 그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요로우며 기쁨과 감사만 있는 행복하고 건강한 성경적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완전하고 평화로운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은 것입니다. 이로써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재선 목사
안양·수원교구
상담부

두려움, 갈등, 불화 … 죄로 인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이들에게 임한 첫 번째 결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을 향해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며 교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범한 두 번째 결과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별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신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영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에게 잘못을 책임 전가하며 각종 불안과 의심, 비난과 공격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 가장 불행한 현장이 바로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가정 회복의 길, 예수님이 참주인 돼야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락 이전 에덴동산에서 누리던 온전하고 평온했던 가정의 모습을 되찾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의 참 주인이 되실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회복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자녀와의 문제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며, 관계는 치유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참된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영락의 모든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남**



가정은 신앙의 대 잇는 '메인 스쿨'

신앙적 삶 사라져가는 기독교 가정들

오늘날 가정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갑작스러운 결과물은 아니다. 이미 반세기 전 사회학자 앤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가정의 미래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앞으로는 가정이 와해할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놀랍게도 그의 예견은 적중했다. 기독교 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무엇보다 기독교 가정의 더 큰 위기는 가정 안에서 신앙적 삶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믿음의 싹을 피워야 할 가정은 1주일 내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불신자 양성소'가 되어가고 있고, 가정예배는 신앙 좋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다.

코로나發 위기…가정에서 희망 찾는 기회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기독교 가정의 위기를 가속했다. 미래학자이자 기업가인 제이미 메츨(Jamie Metzl)은 2020년 3월 싱글래티 대학교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가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결코 일상

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¹ 그는 코로나19가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메츨의 이야기처럼 팬데믹 이후 종교영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금껏 가정이 짊어져야 할 자녀 신앙양육의 책임을 상당 부분 교회에 의탁하고 있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었다. 숨겨두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오히려 코로나19는 교회와 가정의 부모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주목받지 못했지만, 코로나 기간 그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다. 코로나19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다음세대 양육의 거점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되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가정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교회학교 준비사항 1순위가 '자녀 신앙을 위한 부모교육'인 것을 볼 때 일맥상통한다.(51%) 또한 실제로 2022년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예장 통합 소속 담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목회자들 역시 현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다음세대 교육임을 통감하고 있다.(35.4%)²



백홍영 목사
공명교회 담임
전 영락교회 전도사

1)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서울: 교보문고, 2020), 80쪽.

2) 지용근 외 9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서울: 규장, 2022), 198쪽.



다음세대 신앙 전수, 교회 아닌 가정의몫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회와 가정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다음세대 교육의 대안으로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대두되어 서는 안 된다. 원래 다음세대 신앙 전수는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였음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놓치고 있었던, 아니 뒷짐 진 채 교회에 맡기기만 했던 다음세대 신앙 전수를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잘 진행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즉 무게 중심을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다. 가정이 자녀 신앙 양육의 조력자에서 주체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회는 움켜쥐고 있든 혹은 움켜쥘 수밖에 없었던 주도권을 부모(주 양육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더라도 가정에서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교회 교육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

이라는 텁니바퀴와 교회라는 텁니바퀴가 맞물려 돌아 가야만 한다. 우선 필자는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모의 역할이다. 신형섭 교수는 부모세대가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라 함은 가정의 신앙교사로서 사명을 확인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기독 부모의 정체성 교육은 물론이고, 부모가 먼저 가정과 세상에서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부모 신앙경건 훈련, 자녀의 인생 주기에 따라서 요청되는 전문 지식과 실천을 제공하는 자녀양육 교육,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 위한 가정예배 훈련 등을 말한다.³

다음세대 신앙교육의 주 관심사는 어찌 보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모가 바

3) 신형섭,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서울: 두란노, 2020), 120쪽.



로 서야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공명교회 초창기에는 매월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중 함께 읽었던 책이 폴 트립(Paul Tripp)의『완벽한 부모는 없다』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가야 하고, 가정에서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지 책을 통해 서로에게 도전을 주었다. 공명교회는 새가족이 등록하면 가정예배 강의를 진행한다. 이는 교회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부모가 주체임을 각인시켜주기 위함이다.

교회 밖에서도 한결같은 믿음 부모가 본 보여야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는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토대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여주는 교육이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 중에 ‘배운다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테필린(경문)’을 손과 이마에 직접 차고 다녔고, 대문과 방문 옆에는 ‘메주자(작은 상자)’를 붙여 놓았다.

둘째, 들려주는 교육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하루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아침, 저

녁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각 가정이 하루에 세 번 가정 경건 생활을 하게끔 독려했다.

셋째, 반복 교육이다.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 히

브리어로 ‘샤난’이라는 것은 ‘찌르다, 반복하여 가르치다’란 뜻이 있다. 잘못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삶이 자녀들을 유혹하고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넷째, 함께하는 교육이다. 신앙 훈련은 특별 과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적과 동영상을 통해서 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지속해서 훈련해야 한다. 결국 ‘신앙 교육’은 ‘신앙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삶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부모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만의 신앙이 아닌 가정 안에서의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정예배의 기본은 자녀와 따뜻한 관계 구축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가정예배를 드리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하여 가정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나 자녀 간의 나이 차가 크면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다. 자녀들의 연령과 신앙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을 찾아야 한다.

우선 영유아기는 이해를 통한 신앙의 발달보다는 부모와의 깊은 애착을 기반으로 모방을 통해 신앙이 발달한다. 이 시기에는 짧은 이야기 성경책을 꾸준히 읽어주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유치기와 초등학생 자녀는 상상과 발견과 성취감으로 신앙이 성장한다. 이때는 성경의 메가 스토리를 꾸준히 읽어주고, 자녀가 질문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때 그림책으로 드리는 가정예배는 큰 도움이 된다.

사춘기 아이들과는 그들의 고민을 나누고 신뢰와 사랑으로 격려와 힘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때는 자녀들과 이슈형(이야기)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다. 이슈형 가정예배는 가족 전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당일 혹은 주중에 드리는 가정예배의 핵심적인 주제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날 혹은 그 주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 즉 하나님 안에서 웃고 우는 일을 나누며 바라고 기도하고 성취하고 실패하는 모든 과정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의 따뜻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알고, 다양한 가정예배 모델을 배웠다 하더라도, 자녀와의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가정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행복과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데, 관계 형성이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예배의 시작도 어려울뿐더러 지속도 어렵다. 그렇기에 자녀에게 확인, 점검, 통제와 같은 일상 언어보다는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어야 한다. 또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정의 영적 공동체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삶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일 때 비로소 영적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선 '3S'가 필요하다. 첫째는 공간(空間, Space)이다.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비단 식사 자리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자리 를 만들어야 한다. 부모는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럴 때 그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共有, Sharing)하게 된다. 요즘 각 가정에서는 세대 차이나 직업과 학업이란 바쁜 일정의 이유로, 서로의 개인적인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야 믿음의 가정은 각자의 삶뿐 아니라 신앙 이야기를 힘써 공유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런 공유가 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공감(共感, Sympathy)하게 된다.

부모는 믿음의 경주자인 동시에 계주자

우리 부모는 믿음의 경주자이다.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야 한다. 동시에 신앙의 계주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혼자 믿음을 지켜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믿음의 바통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계주는 혼자가 아니라 마지막 주자가 완주할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다. 이 거룩한 책임을 완주하는 기쁨을 짊어지는 부모이길, 동시에 그 부모 밑에 신앙의 썩을 틔워가는 자녀 되길 소망해 본다. 적정 행복이 아닌 전적 행복을 찾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만남**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의 찬송가같이 복되고 즐거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부산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저를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예수의 새 생명 누림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축복

시아버지의 건강 악화와 임신 등으로 심신이 연약해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어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믿음의 친구들이 매일 오전에 방문하여 나를 위해 한 달 걱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이를 전,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저의 가슴에 선명한십자가 보혈의 징표를 보여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세면대에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여 남편은 울보 권사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교회 봉사와 기도, 전도에 힘쓰도록 강압적으로 몰고 가시어 여전도회, 유치부, 새가족부 등 제직부서와 권사회장으로 헌신할 은혜도 주셨습니다.

선대의 신앙을 이어가며

남편의 가정은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려있는 집안으로, 평양에 기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던 1900년도 초기에 증조모가 일찍이 선교사적 사명을 지니고 김씨 집안으로 시집옴으로 복음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조부는 평양 감리교 청년대표로 감리교년회에도 참석하는 등 평양 기독교청년회(YMCA)를 비롯하여 평양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을 앞세운 광범위한 애국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시아버지(김성환 장로)도 숭인상업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의 사랑받는 장로로 시무케 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인자하시며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를 드러내는 성품을 소유하신 아버님의 뒤를 이어 남편(김내영)을 장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부부가 교회의 직분자로 함께



양복희 은퇴권사
강남교구



2023년 가족사진 페스티벌



위임목사님과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수술로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믿음의 자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두 아들을 허락하신 것도 축복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사랑스러운 며느리들 또한 믿음의 가정, 장로님 댁의 귀한 따님들이라는 점입니다. 결혼 전부터 익숙했던 그들의 교회 생활은 자녀교육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져, 기도와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 교육으로 가정을 이끌며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부모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또한 감람나무와 같은 여섯 손자녀를 풍성히 허락하시고, 교회학교에서 교역자와 교사들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신앙 지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본당 예배에서는 성경 봉독의 귀한 사명도 맡게 하셨으며, 가족 주일에는 할머니, 아빠, 손녀 삼대가 대표기도를 드리는 은혜까지 허락해주셨습니다. 가정예배나 성묘 때 아이들의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은 마

치 천사의 노래처럼 들려옵니다. 또한 의료선교부의 해외의료봉사에 손녀와 손자를 동참하게 하셔서, 어린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느끼는 귀한 경험도 주셨습니다. 재작년 가족 주일에는 가족 사진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받아(왼쪽 사진), 우리 가정에 깊숙이 흐르는 믿음의 모습을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은혜도 허락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락교회를 위해 소명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어머니기도회를 권사님들과 섭기며, 교회학교 자녀와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자리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의 힘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섭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믿음 생활에 즐겁게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믿음의 3대 이어주는 키워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신철호 집사·최희영 권사 가족

가정의 달 5월에 3대가 영락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철호 집사와 최희영 권사 가족을 만나 보았습니다.



샬롬!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신철호 집사 : 첫 만남은 저와 아내를 모두 알고 있는 권사님의 소개였습니다.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쁜 참 한 색시가 있다는 말씀에 흔쾌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도 ‘믿음도 좋고 건실한 총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제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결심하면서 아내에게 함께 가자고 청혼 아닌 청혼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였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결혼 승낙에 제가 가장 놀랐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담으로 아내는 ‘청혼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하고 합니다.

영락교회에서 결혼하셨는데, 반대는 안 하셨는지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다시 유학길에 오르는,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을 사윗감으로 마음에 쏙 들어 하실 부모님이 어디에 계실까 싶습니다.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장모님의 “결혼 후 어떻게 학업과 생계를 꾸려나갈 것인가?” 물음에,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는 말로 얼버무리며 제대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그런 부족한 저를 사위로 받아주신 장인 장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이 떨어진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영락교회에서 식을 올리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웬지 모르게 ‘결혼식은 꼭 교회에서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아내와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결혼식은 (영락)교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군선교 현장을 방문한 최택곤 은퇴집사(맨 오른쪽)

지금이야 팔순이 넘으셨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은 영락교회에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나요?

장인어른(최택곤 은퇴집사)께서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셨습니다만, 30여 년 전 우연한 기회에 참석하신 영락교회의 산상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30여 년 전의 산상기도회가 인연이 되어 지금의 우리 가족까지 이어진 상황이 놀랍습니다.

평소 대한민국 국군 장교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장인어른은 영락교회로 오신 후 영락ROTC 장 교회 회장과 기독장교연합회 운영위원 등 군 관련 모임을 중심으로 최전방 군부대 선교활동에 애착을 갖고 봉사하셨습니다.(위 사진)

장모님(이영신 은퇴권사)의 가정은 제 아내까지 포함하면 5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특히 6명의 시동생을 빼짐없이 믿음의 길로 인도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도하는 과정에서 영적 싸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장모님이 이기셨고요! 또한 장모님은 구역장 직분에 가장 열의를 갖고 오래 봉사하셨는데, 구역장 봉

영락교회는 우리 가족의 ‘중심점’

영락서 만나 결혼… 믿음 더 성숙해져
교통 안내, 통역, 찬양대… 온 가족 열심
장인은 군선교, 장모님은 구역장 헌신
영락에서의 믿음 생활이 삶의 중심점

사를 통해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에 하셨던 교구 조가팀 봉사에도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임하셨습니다. 이때 함께 섬기셨던 분들과는 지금까지도 정기적으로 만나십니다. 최근에는 중보 기도팀과 자원봉사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신철호 집사님은 현재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시나요? 권사님도 직접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목양부와 외국인안내팀, 자원봉사부에서 교통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아부 교사로 10여 년 봉사했는데, 이제 어느덧 60대를 바라보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일 아침에 교회 북문 앞 횡단보도 교통 안내를 시작으로, 2부 예배 시 본당에서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예배안내 봉사를 하고, 이후에는 목양부에서 섬깁니다. 교통안내 봉사(15면 사진1)에서는 섬김의 자세를, 외국인 안내팀에서는 구성원 간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그리고 목양부에서는 신년기도회, 80주년기념 기도운동 등 교회의 여러 중요 행사의

기획/진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여려모로 부족한 제게는 봉사 자체가 큰 도전이어서 믿음의 선배님들을 따르며 배우는 자세로 섬기고자 합니다.

최희영 권사 : 학생 시절 호산나성가대를 시작으로 시온찬양대를 거쳐, 지금은 매주 수요일 할렐루야찬양대에서 봉사합니다. 어린 시절 찬양대 봉사가 지금까지 제 삶의 찬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이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권사로 임직받고 제3여전도회 중앙회와 지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사진2)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데, 자녀 양육 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요?

저와 아내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부로 만난 가정에 두 아들이 더해져 가족이 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저와 아내가 경험한 믿음의 기적을 우리 아이들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장남에게는 먼저 '말씀 안에서의 일상'이 되도록 틈틈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QT로 하루를 시작하여 잠들기 전 기도로 마무리하는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인 둘째는 대입 준비 과정에도 믿음 생활에 충실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질 시기일 텐데도 주일예배는 물론, 머리를 식히다며 때때로 수요예배를 다녀오는 뒷

모습이 늠름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도 많은 갈등과 인내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와 아내의 세상과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다르기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나침반을 줘여줄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수고는 오히려 기쁨이겠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겸손히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두 아이의 앞날에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저와 아내가 보기에도, 자녀들의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어느 정도 상상이 되기에, 또 부모로서 바라는 것도 분명히 있기에 잔소리가 입술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이 그들의 앞날에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학원 진학이 궁금합니다. 둘째는 올해 입시에서 어느 과에 지원할 예정인지요?

신정연 : 지금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수학에 흥미가 있어서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수학이라는 학문을 향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수학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원 : 체육교육학과를 염두에 두고 입시준비중입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신경이 남다르다', '특정 종목에 소질 있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데에도 흥미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체육교육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2

- ❶ 주일새벽 교통봉사하는 신철호 집사
❷ 3월 25일 여전도회 연합수련회에서
찬양인도하는 최희영 권사(가운데)

입시 준비 전, 중 고등부에서는 어떤 봉사 활동을 했는지요?

신정연 : 유치부와 초등부에서는 찬양대로 활동했습니다만, 중학생 때는 당시 소속되어 있던 오케스트라의 외부 봉사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교회 봉사는 좀 멀어졌습니다. 고등부 시절은 코로나 시기였기에 봉사 활동은 할 수 없었네요. 지금은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QT와 기도 생활에 익숙해져 노력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매일매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정원 : 저 또한 주일학교 찬양대 활동을 했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시절은 형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로 봉사 활동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입시 준비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집 근처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면 기분도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신철호 집사 : 둘째의 경우 매일 아침 등교 전에 성경

말씀을 읽고 나갑니다. 학교에서도 ‘기독학생동아리’를 만들려고도 했다네요. 요즘 제가 출·퇴근시 듣는 CCM의 대부분은 둘째 덕분입니다. 저의 고3 시절과 비교하면 훨씬 어른스러워요!

마지막으로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영락교회란 어떤 의미일까요?

신철호 집사, 최희영 권사 : ‘영락교회는 우리 가족의 중심점’입니다. 저나 아내의 믿음 생활이 영락교회에서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아이들 모두 이곳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영접했기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인생의 동반자이자 믿음 생활의 조연자인 아내를 만난 곳도, 또 결혼식을 올린 곳도 바로 이곳 영락교회이기에 우리 가족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영락교회에서의 믿음 생활이 앞으로도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중심점’입니다. **만남**

취재·정리 김대준 기자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복한 결혼의 전제조건 '사랑과 헌신'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때 이 가정들이 어우러져 더 좋은 사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결혼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각자 다른 환경과 형편에서 살아온 두 성인이 결혼을 통해 함께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성장배경을 이해해야 하고 서로의 성격 차이, 습관, 가치관, 기호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서로 인내하고 존중함으로써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배려,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교육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된 상담



문지현 집사
상담부 결혼준비교육팀장
마포·영등포교구

부의 가정사역이 '결혼준비교육'입니다.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 주제의 결혼준비교육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준비교육은 신앙과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제1강 '성경적 가정의 원리', 제2강 '소통하는 대화', 제3강 '부부갈등 해결', 제4강 '결혼의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결혼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결혼준비교육을 통해 나의 모습을 알고 이해하면서 결혼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준비해야 할 모습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결혼 앞둔 예비부부 누구나 참여 가능

부부는 한 그루 나무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무를 키우면서 돌보지 않는다면 금방 시들해지고 뿌리는 말라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과 이해로 경외하고 섭기면서 연합될 때 천국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결혼예식을 앞둔 모든 예비부부에게 적극 권합니다. 결혼준비교육을 통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결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새롭게 깨달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정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4:00~17:00
(봉사관 405호 / 7월, 12월 휴강)

문의·신청

상담부 02)2280-0171
(봉사관 303호/ 사전 예약 신청)



1월 수료자

최기훈/신은숙 커플

결혼준비교육을 통해 하나님
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의미
와 현실 속 결혼생활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
말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
었습니다.



2월 수료자

김현우/김형미 커플

축복해주시던 스태프들의 표정을 통해, 또 강사
분들의 열정적인 인도와 강의로 그저 감정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결혼이라는 개념을 다시금 성
경적으로 재정의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
혼 준비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2월 수료자

최정진/신별이 커플

예수님이 머리 되신 가정을
꾸려나가는 한 팀원으로서
서로 어떻게 존중하고 사랑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내용
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되어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하이 탐험대! 그 길을 따라서’ 주제 믿음의 탐험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5월, 유아부와 유치부 자녀를 둔 영락교회 가정들이 한데 모여 ‘2025년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가 마련한 이 특별한 행사는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신앙교육의 장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일 하루의 활동에 머무르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삶과 가정의 연계 안에서 자라 열매 맺도록 해야 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믿음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 가는 교회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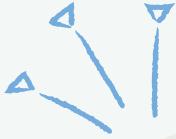
이 연합할 때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공동체적 필요성에 따라 영락교회는 매년 어린이날에 유아·유치부 가정을 위한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영아·유아·유치부 교역자들은 1월부터 꽃잔치를 위한 콘셉트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해 교회의 방향성과 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자녀와 가정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교역자들이 먼저 한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역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는 교사들이 어우러져 풍성한 잔치가 열립니다. 부서별로 맡은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과 가정이 어떻게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헌신하는 교사들은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의 보배입니다.

2025년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 주제는 ‘하이 탐험대! 그 길을 따라서(요한복음 14:6)’입니다. 이번 꽃잔치를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의 전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홍지연 목사
영·유아·유치부(영아부)



지비츠로 꾸민 노란 팔찌



뮤지컬 예배로 시작… 먹거리, 놀거리 풍성

꽃잔치의 포문은 ‘뮤지컬 예배’로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친양과 연극이 어우러진 예배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후 진행되는 ‘복음 팡팡 놀이터’는 복음을 놀이로 풀어낸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아·유치부 아이들이 복음을 몸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범퍼카, 에어바운스, 키즈카페 등 다양한 놀이 시설과 더불어 떡볶이, 아이스크림, 슬러시, 소떡소떡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신나는 하루를 보냅니다.

2025년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에 참여하여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친구들에게는 장식용 액세서리인 지비츠를 나누어 주는데, 노란 팔찌대에 예쁜 하트와 예수님이 얼굴, 영락교회 지비츠를 하나씩 채우며 배가 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어느 봄날, 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들판에 연을 날리러 나갔습니다. 아이는 한 손으로 연줄을 잡고 열심히 달렸지만, 연은 번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왜 연이 안 떠요?” 아이가 묻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은 한 손으로만 잡으면 균형을 못 잡아. 두 손으로 줄을 팽팽하게 잡아야 하늘로 올라가지”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따라 두 손으로 연줄을 꼭 잡자, 연은 어느새 높이 높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두 손이 함께 아이를 불들 때, 아이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납니다. 2025년 하늘나라 꽃들의 잔치를 통해 영락교회의 모든 가정이 교회와 손잡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팀협을 계속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혼들림 없이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만날**



2024년 8월 진행된 유럽 비전트립 때 프랑스 성 니콜라스교회에서



2024년 11월 양평 양떼목장에서 제자훈련 수료 캠프

교사란,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자리

스무 살이던 2019년, 교사 교육을 받고 처음 교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며 어느덧 일곱 번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교육부서 중 왜 고등부냐”라고 물기도 하지만, 제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의 소망 “애들아, 땀과 함께 성장하자”

중등부 시절까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는, 말하자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사는 아이였던 저는 고등부에 올라와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이 제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 아직 자기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에 오는 자녀들

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기 신앙’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고등부에서 받은 넘치는 사랑을 이제는 고등부 교사로서 다시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의 마지막을 보내는 아이들의 삶도, 제 삶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일깨운 2024 유럽 비전트립

수많은 사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단연 2024 유럽 비전트립입니다. 총무로 섬기게 되었을 때, 제 경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 생각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기에 나를 통해 큰일을 하시려니



우예인 성도
고등부 교사
마포·영등포교구



제자훈련 수료 캠프 중 세수식

보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고, 기도 중에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준비한 고등부 학생들의 눈빛과 마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다시금 사랑과 기대를 채워주셨습니다.

‘Joseph Project’라는 주제로 떠난 2024 유럽 비전트립은 사도행전 7장 9~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발 전 8주간 진행된 특강을 통해 역사와 신앙에 대한 시각을 넓히며 훈련받았고, 믿음의 선배인 얀 후스, 루터, 장 칼뱅의 발자취를 따라 종교개혁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특히 방문 전날, 퀴어축제가 진행되었던 얀후스 광장에서, 태권무와 스케드라마, 영문 특송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찬송가를 퍼뜨리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얀후스처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장소와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의 나눔을 들으며 ‘나도 학생 때에 나의 사명, 나의 꿈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다면 성인이 되어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 중에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으로 신청조차 어려웠던 학생이 기도로 상황이 열려 함께하게 된 순간,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했던 친구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고백하던 나눔, 처음엔 혼자였지만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며 “교회가 좋아졌다”고 말하던 아이들… 이 모든 간증이 제게 너무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눔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사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자리

저는 고등부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인연이 고등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부에서도 ‘언니’, ‘누나’로 이어져 함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리는 단순한 ‘사역’이 아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의 자리’이자 ‘관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하거나 사랑이 많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사의 자리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고등부 친구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님이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만남**

쌤 덕분에 '존경'을 알게 됐어요

<우예인 고등부 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에 재학 중인 영락교회 대학부 53기 이민하입니다. 이번 5월 『만남』을 통해 주일학교 고등부 시절의 우예인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글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남』에 글을 싣게 되며 자연스레 스승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청소년 시기에 만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우예인 선생님의 관련 기사는 20면 참조>

방황하던 날 잡아주신 예인 선생님

올해로 스무 살이 된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지만,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히 우예인 선생님께 감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는 ‘저라는 사람’, 그리고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참 굴곡이 많은 청소년 시기를 지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흔들렸고, 솔직히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모습 속에서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보

여주셨습니다.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사고만 치던 저를 아무 이유 없이 과분할 만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물론 감사하지만, 특히 우예인 선생님은 제가 힘들 때 함께 아파해주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셨습니다. 그런 선생님 덕분에 청소년 시기를 벼텨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였다면, 저 같은 학생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너져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선생님은 제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신앙에 회의가 들고, 다 내려놓고 떠나고 싶었던 때에도 선생님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께 말해도 된다”고 묵묵히 저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존경’이란 단어의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했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통해 교회



이민하 성도
대학부 모세마을

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도 학교든 사회든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예인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위로자이자 지지의 손길이었습니다.

교회 선생님은 하나님의 선물같은 분

청소년 시절의 교회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트립이나 수련회를 반강제로 보내셨던 부모님 덕분에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가기 싫은 마음으로 억지로 참여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항상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필요한 시련과 훈련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돌이켜보니 항상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 선생님들은 함께 기도해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8월 진행된 유럽 비전트립 때 스위스 장 칼뱅 탑방 중. 왼쪽부터 이영호 목사, 필자, 우예인 교사

고3 비전트립 맨 제 고민 새벽까지 들어주셨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입시에 따른 부담 속에서 다녀왔던 비전트립은 제게 잊지 못할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비전트립 도중, 너무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예인 선생님과 김태용 전도사님께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고, 그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지금의 저를 형성해 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생님은 감사한 존재를 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학생 시절의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히 우예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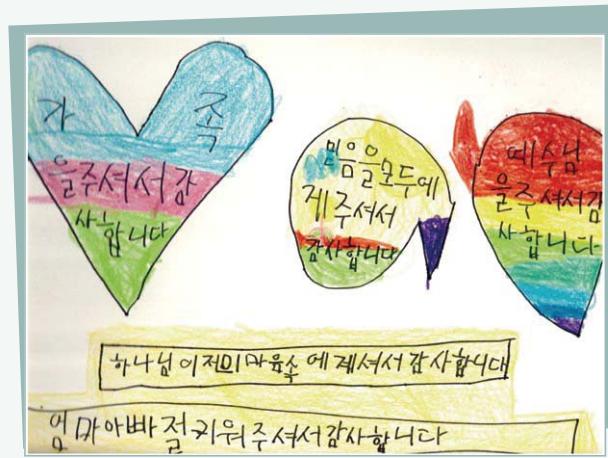
저도 꼭 주님 안에서 성장해서 청소년 시절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선생님들처럼,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제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의 나눔을 이렇게 글로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만남**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

육아와 가사, 경력단절 남성으로 10년 삶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자면, 단연코 첫째와 둘째의 육아를 위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와 가사에 전념했던 10년 전입니다.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해 보이던 첫째 아이, 그리고 업무 특성상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일단 가정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으로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오랜 기도와 응답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빠의 육아휴직’이 낯선 시기였습니다. 제 퇴직일이 아내의 복직일이었고, 그날부터 34개월 된 첫째와 15개월 된 둘째의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툰 요리로 아이들의 끼니를 챙기고,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청소, 빨래, 설거지와 씨름하며 툭하면 아프던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지냈던 그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절대 쉽지 않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힘들었던 것은 비단 고단한 육아와 가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출산 후 여



막내 아들 '주안'이가 7살때 그린 그림

성들이 흔히 겪는 경력 단절을 제가 직접 겪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경력단절 남성’, 곧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더 불안해했지만, 여러 번의 갈등을 거치면서 저 또한 평안을 잊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꽤 오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실행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이라는 녀석은 어느새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이내 몸집을 키워가며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유원진 집사
서초고구
NK국제학교 교사

불안이란 괴물과 싸운 연단의 시간들

그 후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몇 차례 옮겼고, 대학원에도 다녔습니다. 가정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셋째도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던 그때에 비하면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제 삶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역시 10년 전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웠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연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탄생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로서 풍파를 겪으며 내면과 영성이 성장하는 그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경험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비록 힘겨웠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래 막막한 탈북청소년 봉사에 눈띠

아이들이 조금 자라 약간의 여유가 생긴 지금, 저는 목요일 저녁마다 시간을 내어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는

뉴코리아국제학교(NKGI)에서는 배움에 목마른 탈북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경력의 단절을 경험했다면, 이들은 삶의 단절과 배움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 아무 기반도 없는 대한민국에 와서 문화적으로도 이질적인 동년배들과 함께 경쟁 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제가 느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불안감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는 제가 이 젊은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돋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의 뉴코리아국제학교는 다변화된 학생들의 니즈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졸업과 취업을 위해 영어 실력이 절실한 학생이 많습니다. 또, 기초 학력이 부족하여 경영학, 통계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 2세들은 한국어를 외국어처럼 배웠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려면 더 많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지지와 진로 상담도 필요합니다.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층의 교육 봉사자가 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의 제게 그랬듯이 이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도 나중에 지금의 시간을 돌아보며,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이웃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날**



원문에 충실하게, 읽기는 쉽게 다음세대를 위한『새한글성경』

한국 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인『새한글성경』의 완역과 출간을 기념하는 봉헌예배 및 학술 심포지엄이 4월 8일(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새한글성경』읽기

지난해 12월 10일 발간된『새한글성경』은 원문의 의미와 구조를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21세기 다매체 시대에 적합한 현대 한국어의 표현과 문법을 고려해 번역되었습니다. 이 번역 작업은 2011년,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인 대한성서공회 이사회와의 결정에 따라 시작되어 총 13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 교단의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번역과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

를 멀리하는 다음세대를 품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911년에 번역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한국 교회가 지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새한글성경』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번역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탈권위주의적 예수님을 만나며, 영혼 깊은 곳에서



『새한글성경』봉헌예배에서 김운성 위임목사가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하여(요한계시록 1:1~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친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한글성경』을 통해 미래의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읽으며 평생 신앙생활을 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새한글성경』번역의 특징

1) 쉽고 간결한 문장과 원문의 구조, 어원, 어순을 살린 번역

한 문장을 최대 16어절 50글자가 넘지 않도록 짧은 문장으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원문의 구조, 어원, 어순을 살려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예로 들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로 번역했는데, 이는 서신서라는 장르와 어순을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한 문장으로 번역하여 원문의 메시지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크기가 작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에서도 성경 읽기의 가독성이 뛰어난 번역을 목표로 했습니다.

2)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높임법의 사용

옛 문체의 종결어미인 ‘-느니라’ 체를 쓰지 않고, 현대 한국어 종결어미인 ‘-이다/-하다/-합니다’ 체를 사용했으며, 본문의 배경에 따라 우리말 존대법의 체계를 달리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특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대중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십시오체’, 제자들에게는 ‘해요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할 때는

‘하오체’를 종결어미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반영하여 드러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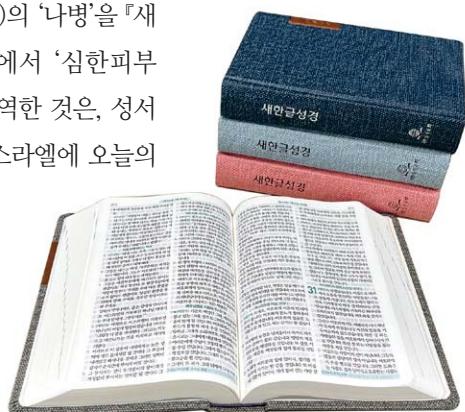
3) 현대적 낱말과 표현 사용, 교회 전통 용어를 새롭게 번역

과거에는 널리 쓰였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는 낱말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젊은이가 사용하는 새로운 낱말과 표현을 찾아 번역했습니다. 제사 용어나 절기 용어 등은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살려 우리말로 번역하고, 원문 글자 그대로의 표현은 각주로, 전통 번역어는 팔호 안에 병기했습니다. ‘넘는명절(유월절)’, ‘누룩없는빵(무교병)’, ‘다태우는제사(번제)’, ‘거두어들이는명절(맥추절)’ 등이 그러한 보기예에 해당합니다.

4) 장애와 질병 관련 용어의 개선

『새한글성경』에서는 장애인이나 특정 질환자가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장애인 관련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는 말로 번역하고, 일부 질병 관련 용어도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사람’은 ‘지체장애인’으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의 ‘나병’을 『새

한글성경』에서 ‘심한피부병’으로 번역한 것은, 성서 시대의 이스라엘에 오늘의





『새한글성경』 학술 심포지엄에서 “『새한글성경』이 다매체 시대의 한국 교회 다음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6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한센병’에 해당하는 질환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5) 현대 단위와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

『새한글성경』은 도량형과 화폐 단위, 시간과 요일을 다매체 시대의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익숙한 것으로 바꾸어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데나리온이나 달란트 등 원문의 단위가 더 익숙하고 간명한 경우에는 원문의 단위 그대로 번역하고 각주에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하여 표기했습니다. 또한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하여 독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6) 교과서 용례에 맞춘 고유명사의 음역

『새한글성경』에서는 인·지·명 등 고유명사의 음역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용례에 맞추어 번역했습니다. 기존 번역의 음역을 존중하되 성경과 일반 역사의 관련성을 분명히 하여, 성경의 역

사성이 드러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다메섹)’, ‘파라오(←바로)’, ‘시리아(←아람)’, ‘이집트(←애굽)’로 바꾼 것이 그러한 보기에 해당합니다.

7) 문장 부호 사용과 예언서의 화자 팔호 표시

『새한글성경』은 ‘한글 맞춤법’ 규정을 준수했으며, 쉼표로 낭독의 편의성을 높이고, 물음표와 느낌표 등의 사용으로 문맥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등 문장 부호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언서를 읽다 보면 체계가 복잡하여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자가 달라질 때 ‘(하나님)’, ‘(예언자)’와 같이 팔호 안에 화자를 밝혀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중 인용의 복잡한 구조를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홑낫표(『), 겹낫표(』) 등을 활용하여 층위를 드러냄으로써 핵심 메시지를 쉽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2.『새한글성경』의 활용 방안

1) 어린이 공과나 청소년의 성경 공부 교재로, 새 신자 교육용으로

『새한글성경』은 어린이 공과, 청소년의 성경 공부 교재, 새 신자 교육용 성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결한 문장과 현대 한국어 문체를 사용함으로 말씀이 낯선 이들이 성경 말씀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교회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새한글성경』을『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대조하여 읽기

『새한글성경』을『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함께 읽으면 원문의 의미와 그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을 대조하여 읽는 방식은 말씀에 대한 해석력과 신학적 통찰을 키우는 데 유익하며, 삶에의 적용력을 높여줍니다.

3)『새한글성경』을 소리 내어 읽기

『새한글성경』은 원문의 특성을 살려 구어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다매체 환경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오감을

활용하는 개별 낭독 방식이 매우 적합합니다. 휴대폰이나 녹음기를 활용한 음성 녹음과 반복 청취는 경건 생활과 말씀 묵상에도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4)『새한글성경』을 필사하며 읽기

『새한글성경』은 현대 한국어 어미와 일상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필사에 참여하도록 돋습니다. 성경을 쓰는 과정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몸과 감각으로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단편적 읽기나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현대인과 다음세대에게 읽기 훈련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 대한성서공회는 다음세대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새한글성경』본문에 해설, 그림, 사진, 지도, 동영상 등을 다양한 매체와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새한글성경』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세대의 경건 생활을 돋는 성경으로, 또한『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더불어 신앙의 대를 잇는 귀한 도구로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만남**

제공 대한성서공회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신의주보린원은 신의주제2교회와 함께 영락교회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한경직 목사는 1939년 신의주보린원을 세웠고, 1942년 일제에 의해 목회직에서 추방된 다음 전직으로 보린원 사역에 집중했다. 해방 후 한경직 목사가 월남해서 영락교회를 세울 때 그와 교회를 창립한 멤버는 함께 보린원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최근 필자는 일제 말의 신문 기사를 통해 보린원의 본래 명칭은 신의주보육원이었고, 이 보육원의 창립 과정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 호에는 이것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보린원 본래 명칭은 신의주보육원 의산 면려회 고아원 설립 운동서 출발

평북 의산 기독교청년면려회의 의산고아원 설립 추진

삼일운동 이후 기독교인들은 어려운 고아들을 돋는 지역의 유지들의 도움으로 고아원, 혹은 보육원을 만들어 운영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성보육원, 평양고아원 등이다. 평북 선천에도 1927년 대동고아원을 만들었다. 하지만 평북의 국경도시인 신의주에는 아직 이런 고아원이 없었다.

평북 국경 일대에는 국경 특수의 호경기가 있는 반면에 빈민이 많고 따라서 고아가 많다. 고아들에 대해서는 인도상으로 보아 그 가련한 정경에 동정을 금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이와 동시에 고아들은 어느 듯 살풍경인 국경 특수의 불량성에 감염되어 사회의 비상한 해독을 전파해야 사회정책

의미로 보아서도 이를 구제함은 국경인사의 급선무이다.

(조선일보, 1935년 5월 19일)

신의주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립위원회를 선정하고 추진했다.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진 기관은 장로교 의산노회 기독청년면려회였다. 이들은 1935년에 구체적으로 고아원 설치를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그 명칭을 의산고아원이라 정했다. 아울러서 실행위원회를 선정해 5개년 계획으로 1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여 고아원 건축의 기초를 세우고자 했다. 이때 임명된 실행부원은 김기영, 김승명, 이명식, 이봉수, 강영환, 이용희, 정성식, 최동휘, 김두칠, 김항진, 박경백 등이었다.(동아일보, 1935년 5월 19일)

고아원의 창립을 위해서 최초로 헌금한 분은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인 유여대 목사였다. 그는 1931년부터 신의주백마교회에서 시무했는데 34년부터 지병으로 쉬면서 『강대지남』, 『위인기담』, 『면무식』 등의 책을 출판했고, 그 수익금을 고아 사업에 바치기로 약속했다. 그는 1937년 소천하면서 100원을 기부했는데, 약속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아원 설립을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孤兒園設立_上決議

금년내에 고아원간판이 불어

義山老會 基青勉勵總會事

<동아일보>, 1938.2.21.

위한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최동휘 전도사도 세상을 떠나면서 300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아원 건립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1938년 2월 신의주제1교회에서 청년면례회 정기총회를 갖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는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1938년 안에 의산고아원을 창립하기로 결정했다.(동아일보, 1938년 2월 21일)

당시 청년면례회에는 약 800원의 기금이 있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청년면례회는 해산하게 되어 고아원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조선일보, 1939년 5월 4일) 이런 상황에서 고 최동희 전도사의 모친 박찬순 씨를 중심으로 각 교회 유지가 힘을 합하여 고아원을 설립할 수 있는 설립자를 찾게 되었다.

한경직 목사의 등장과 신의주보육원의 설립

1938년은 한국장로교회의 시련의 해였다.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밖교회에서 장로교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이렇게 우울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1938년 말 신의주제2교회에서 시무하던 한경직 목사에게 한 젊은이가 폐결핵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경직 목사가 방문하여 보니 그는 아내가 떠나버린 상황에서 다리 하나를 잃은 복순이라는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한경직 목사는 그 사람을 보살펴 주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복순이를 보호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의주제2교회 신자의 집에 부탁했으나 오래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복순이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당시 고아원의 설립자를 찾고 있던 기독청년면례회 고아원 설립 추진자들과 복순이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한경직 목사는

서로 만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자연스럽게 신의주 고아원 설립 운동이 한경직 목사에게 넘어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복순이 거처 만들자” 호소한 한경직 목사

1939년 봄 한경직 목사는 신의주 사회의 교회와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고아원 설립을 호소했다. 그는 우선하여 신의주에서 사업하는 신의주제1교회 백지협 장로와 김응락 집사를 방문하고 후원을 호소하여 각각 500원을 받았다. 이것을 토대로 고아원을 세워 신의주보육원(일명 의산고아원)으로 명칭을 정했고, 신의주부 하정(霞町, 가스미초) 1번지의 건물을 매입하여 수리했다. 보육원 원장은 한경직, 원감은 안승성이었다. 개원식은 1939년 5월 1일에 오전 11시에 거행되었는데, 300여

고아원을 크게 짓고 그 옆에 양로원을 조금 작게 짓고, 이곳을 관리할 사택을 짓고, 사찰을 위한 집을 한 채 더 지어 모두 네 동을 지었다.

아동관에는 기도실과 주방, 식당, 목욕실, 사무실 외에 아이들이 기숙하는 방도 10개 있었다. 노인관에는 식당과 주방 외에 노인들이 기숙할 방이 역시 10개 있었다.

- 한경직, 『나의 감사』 중에서



신의주보리원, 원쪽-사택, 뒤쪽-무의탁노인 숙소, 오른쪽-원아 숙소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개원식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당시 신의주보육원을 후원한 사람들과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다. 신의주제1교회 목사였던 윤하영은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월남했고, 백지립 장로는 해방 전 서울로 이사와 한경직 목사가 월남했을 때 도와주었고, 백경보 장로는 영락교회의 창립 멤버였으며, 김응락은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가 되어 6·25 당시 순교했다.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원감으로 봉사했던 안승성 장로(신의주제1교회 장로)는 이미 이 지역의 유력한 유

지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기여했으며, 무보수로 보육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갔다. 회계인 장병원은 신의주제2교회 장로로 평북도청에 근무했다. 흥미 있는 것은 일본인 신의주부윤(府의 장)과 경찰서장도 고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와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조선일보, 1939년 5월 4일)

보리원 섬긴 사람들과 함께 영락교회 세워

이렇게 시작된 신의주보육원의 다음 역사는 널리 알려져 있다. 1942년 한경직 목사는 일제에 의해서 신의주제2교회 목회직에서 추방되었고, 시내 하정에 있던 보육원은 남신의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한경직 목사는 양로원도 세워 노인들을 함께 보살폈다. 아마도 이때부터 신의주보육원은 신의주보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김병희 편저, 『한경직 목사』, 규장문화사, 1982, 44~45쪽). 결국 한경직 목사는 이곳에서 해방을 맞았고, 월남한 다음에는 보리원에서 일했던 사람들과 함께 영락교회를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만날



<조선일보> 1939.5.4

老권사님들의 훈훈한 이야기



연시 세 개에 담은 老권사님의 ‘섬김’

우리 교구의 성도는 총 1,744명으로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233명의 은퇴자와 4명의 시무장로를 비롯해 188명의 시무권사와 시무집사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동·광진 3교구(목사:김충섭)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주택이 주류였던 지역으로 유난히 연세 많은 권사님이 많았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목사님의 심방을 학수고대하며, 주신 말씀과 기도에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던 노 권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제가 심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며 내 두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던 우리의 권사님.
“아 참!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시며 뒤통뒤통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잠시 후, 무엇인가 담긴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오셔서 내 손에

심방 오신 목사님에게 건넨 검정 봉지
그 속엔 꽂아 터져 변색한 연시 세 개
“목사님 드리려고 아껴둔 맛 난 거야”
그날 밤 목사님은 섬김의 마음 알고 엉엉

쥐여 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목사님 드리려고 아껴둔 건데요. 달착지근 해서 정말 맛날 거예요” 하시며 자랑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권사님, 맛난 거는 권사님이 드셔야지요,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날이 아직 많습니다”

실망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검정 봉지를 냉큼 받았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제야 환한 모습으로 배웅해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정 봉지를 열어보니, 세 개쯤 되어 보이는 연시가 들어있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대접하기 위해 아껴두었던 그 연시는 이미 물컹물컹했고, 터진 연시 속은 거무스름하게 변색해 있었습니다. 꽂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뒤통아 앉아 울면서 그 연시를 다 먹었습니다.

“아빠, 혼자 뭐 먹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건데 권사님이 아빠 혼자 먹으라고 주신 감이야”

그 연시가 터지고 냄새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향한 권사님의 깊은 정, 그 마음만은 아무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녀조차와도 결코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천 원짜리 2~3장을 손수 주머니에 넣어주시며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민망해하시며 따뜻한 마음과 순길을 내어주셨던 권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목사님은 이제 다른 임지로 떠나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정을 나누어 주셨던 권사님들 역시 이제는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노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은 보지 않고도 그려지는 순수하고 진실이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섬기는 그릇, 정이 담긴 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참 후배들에게 3교구의 멋진 신앙을 담아내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은사, 정을 나누는 은사는, 선배 권사님들이 3교구 식구들에게 남기고 간 유산입니다.

생후 2개월부터 손녀 키운 권사님의 고백

이런저런 흐뭇한 모습의 3교구 식구 이야기를 뒤로한 채 슬픔과 좌절을 느껴야 했던 한 권사님의 애절한 고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개월 된 첫딸을 남겨두고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한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오가며

20여 년의 짧은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사님의 며느리였습니다. 투병으로 몸부림치는 며느리를 위해 3교구 식구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3교구의 딸이요, 손녀로 마음에 품고 지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씩씩하고 명랑한 5학년이 되었습니다. 재능이 많고 인기도 많은 친구들에게도 양보를 잘하는 밝고 반듯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젊은 엄마와 함께 다니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밝은 모습으로 어울리는 아이를 보며, 어른들이 품었던 찐한 마음은 팬한 노파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녀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양보’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 여겼던 아이. “엄마 없는 아이로 놀림당할까 봐, 친구들에게 따돌림받을까 봐…” 두려움의 마음을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숨겨 놓았던 고백을 들은 권사님은 통곡했습니다.

엄마 잃은 딸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빠, 두 달 된 아이를 맡아 키우며 베풀목이 되어 준 조부모,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3교구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손녀를 위해 교육정보 하나라도 놓칠세라 젊은 학부모들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할머니의 희생과 노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또 한 번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조부모일지라도 부모가 아니면 실제 보호자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손녀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 없다”는 교회 측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사경을 해매는 엄마, 곁에서 간호



양보 잘하는 어린 손녀딸 보며 짠함
파돌림 두려워 말 못 한 아픔 알고 통곡
교회 가족 행사에 적극 참여하려 했지만
조부모는 실제 보호자 인정 안 돼 브레이크

하는 아빠, 그들을 어찌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느냐 호소하며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안타까움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교회의 가족 행사 참여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조부모가 보호자로 함께 참여해도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발을 동동거리며 뛰어다녔지만, 결국 그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상실감과 좌절감은 신앙생활마저 내려놓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였습니다.

조부모가 흘린 눈물의 무게를 어린 손녀는 알았을까요. 그것이 조부모이기에 겪어야 했던, 더 깊은 슬픔이었을 겁니다. 두 번의 좌절 속에서도, 지금은 네 식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꿋꿋이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한 부모 가정을 위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 역시도 그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편애받는 이 없이, 모두가 한 선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절하는 이 없이, 숨어 눈물 흘리는 이 없는, 교회 내의 정책을 바랍니다”

3교구의 권사요 어린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는 손녀가 겪은 아픔의 길을 그 누구도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 모든 절차가 개선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아쉬움도, 상실감도, 슬픔까지도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도 한 선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무한 감사하는 3교구의 권사요, 손녀의 할머니는 상처 한 조각을 버리지 못하고, 숨어서 울었던 그때를 모두 잊은 채, 잔잔한 미소 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외쳐봅니다. **만남**

취재·정리 이재향 기자

번아웃된 나를 위로한 물음 "어디 아파?"

안녕하세요? 영락교회 새가족이 된 고창균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나온 제 삶의 모습과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 영락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짧게나마 나
누고자 합니다.

힘겨운 나날, 이사 고민 겹치며 설상가상

저는 과거에 교회를 잠시 다닌 적은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에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
런데 몇 달 전 정확히 이유를 알 수 없는 번아웃 상태
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번아웃을 넘는 깊은 무
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매일매일이 무척 힘들고 버
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주인 할
머니께 재계약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려고
찾아뵈었는데, 제 모습을 보신 할머니께서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느냐”며,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물
어보셨습니다. 이웃 간의 관심이 드문 요즘, 집주인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과 관심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게 되었고
그간의 어려웠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창균 성도
청년회 광야소리

집주인 할머니를 움직이신 하나님

그렇게 집주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라 받
지 않았는데, 얼마 후 같은 번호로 문자가 와있었습

니다. 을지로3가역 몇 번 출구에서 일요일 12시 40분에 꼭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께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집을 내놓으시면서 영락교회 성도이신 윤용식 집사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리며 주일에 교회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더 깊이 알고싶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연결들을 통해 저는 영락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락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고 새가족교육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가족교육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접하면서 그간의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안에 교만과 나태, 분노와 시기, 질투, 탐욕이 가득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마음까지도 매일 품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내면을 마주하고 나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늘 품어왔던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제 안에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했던 마음도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영락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또 청년공동체 활동을 통해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께서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남**

새가족 등록 이렇게



문의 : 새가족부 (02)2280-0310



필자(앞줄 왼쪽 두번째)와 장언순 선교사(뒷줄 왼쪽 첫번째), 고연희 선교사(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함께한 가족들.

네팔 갓난아기, 한국 대학생 되다 놀라워라! 하나님의 '19년 동행'

풀어주신 한국 선교사님 '이삭' 이름도 선물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 뽀우델입니다.

작고 연약한 개발도상국인 네팔은 힌두교가 대표적인 국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1%에 불과했던 200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한국 부부 선교사와 자녀, 두 아들과 함께 4,157km 떨어진 타지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네팔에 오신 선교사님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2년을 보낸 후, 2006년 1월에 아가페 칠드런 홈이라는 고아사역을 시작하면서, 2월 말에 태어난 지 13일 된 갓난아이를 입양하게 됩니다. 아가페 홈에 처음 온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할 땅을 위해 보내주신 기쁨의 선물이라 믿으며,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기도와 예배 함께 드리며 버팀목 돼주신 부모님

한국 선교사님 가정에서의 모태신앙 환경 속에서 늘 기도와 예배를 드리며 자라난 저와 다른 여동생 8명은 매일 성경 구절을 외우고 찬양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십 대 중반 사춘기에 접어든 저는 방에서만 생활하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했고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시달리며 죄에 빠져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친구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겠지! 상관 없을 거야!' 생각하며 마음 가는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기 일쑤였고, 자다가 죽으면 지역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기에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지난 2월 10일 영탁스 회장 김형태 안수집사가 고연희 네플선교사와 필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모습.

것은 부모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방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미래 공부하다 삶 알고싶어 생명공학 선택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고고학과 이집트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겨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 피라미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연구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주로 등장하는 미라는 죽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저는 죽음과 정반대인 생명의 삶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을 선택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동대학교 생명과학과 정학생으로 2025년 봄학기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 한 일을 이뤄주시는 하나님

대학 개강 후 하루하루 지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획과 동행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11) 말씀처럼 죄의 길에 서서 세상 을 향해 달려가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삭이 되길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장이삭 선교사 자녀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튀르키예에서 띄우는 평신도 선교사의 편지

셀람 올순!(평안하세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튀르키예에서 이제 100일 정도를
갓 지낸 신입 선교사 이모세·박하나 사역자 가정입니다. 너무
나 사랑하는 영락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과 동역자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곳에 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낯선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지인들과 꾸준히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
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며 저희 가정은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늘 기도해주시는 동역
자들 덕분에 날마다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인구의 99% 정도가 무슬림을 믿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난 3년
간 15배가량의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유례없는 경제난
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에는 큰 정치적 이슈로 인해 여유 있
던 중동 특유의 삶과는 달리 많이 짹짜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에 갈급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위로가 너무 필요
합니다.

저희 역시 이곳에서 현지인들의 아픔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 자녀가 8년째 병석에 누워있는 가정, 이혼 가정, 겉으로 보

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면은 병든 가정 등… 하지만 오히려 이
런 어려움을 속에서도 이들이 유일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
고, 회복되리라 믿으며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 죽던 청년 만나주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저는 세상의 쾌락이 매우 좋고, 돈 버
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저 자신
을 향해 있었고, 어떻게 돈을 더 벌고 내 이름이 높아질지를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찾던 중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선교
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애통해하시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또 그 일을 위해 우릴 부르시는 하나
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기 위해 준비
했습니다.

선교지로 향하는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건강 이상으로 몇 달을 누워만 있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려던 선교지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선교지를 변경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이건 진짜 아니라 생각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사역 준비하며 여러 시련 속 기적 체험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가정을 향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혜를 항상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심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고, 언제나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하시는 기적을 피부로 깨닫는 경험이었습니다. 저희의 뜻과 다르게 선교지가 변경된 일은 오히려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셨고,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을 지나며 영락교회의 많은 지체가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심을 통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고, 이미



이스탄불 쉬린에블레르 광장. 필자가 매일 지나는 곳이고, 새롭게 친구들과 교제하는 장소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청년부 선배들을 통해서 선교사와 교회에 대해서도 새롭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 선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영락 청년부, 그리고 선교부와 더 면밀하게 조율하는 시간을 거치며 한 공동체로 파송을 받은 것은 저희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이곳에 전도의 문 열여주소서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 장벽이 있고, 이슬람이라는 강력한 종교의 벽이 있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힘에 부치는 것 같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저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들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틀림없이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21~22)*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 마치 황무지처럼 보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거듭나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들에게도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세상을 사랑했던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도 살려 주시기를, 또 저희 가정이 이 땅에서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영락의 모든 지체가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합니다. **만남**

이모세 선교사 _ 튀르키예, 청년회 파송

부부청년회에서 얻는 성장의 은혜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한 명 생각났는데……" 2021년 늦가을, 친구가 대학 선배를 소개했습니다. 마침 20대 중후반에 접어들던 시기여서 친구들을 만나면 진로나 연애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대학부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들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털어놓는 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연애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소개받은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가 어찌 보면 제게는 은인인 셈이지요.

남편 결단으로 영락교회 정착한 우리 부부

2023년 여름부터 신혼집 위치, 살림과 혼수 등 수많은 변수를 찾고 선택하며 한창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는 결혼 후 어느 교회에 정착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는 각자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제 가족의 모교회가 영락교회인 것을 고려한 남편이 우리 교회로 옮기기로 결단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정하고 나니 어느 부서에서 활동할지 고민되었

습니다. 청년부 '광야소리' 부서에 출석 중이던 저는 당시의 대학부 친구들과 나란히 청년부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부 활동을 더 깊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신앙생활을 위한 부서가 어디일지 고민하던 중, 2024년부터 청년부에 '신혼부부' 부서가 새롭게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낯선 교회에서 새출발하는 남편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새로운 부서에서 함께 첫출발하고자 결단했습니다.

신혼부부 ~ 영유아 가정 모인 부부청년회

결혼식을 올린 2024년 6월은 부부로서의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한 달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어색하게 새로운 부서를 찾아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신혼부부' 부서가 1년을 맞이한 올해부터는 '부부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까지 다양한 청년이 모여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남편과 제가 비슷한 나이대의 신혼부부들이 모인 조의 조장 부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성도
부부청년회

신앙 깊어지고 감사 선순환…풍성한 교제도

부부청년회의 좋은 점 첫 번째는, 부부의 신앙과 관계가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는 말씀을 나누려 해도 먼저 설교 내용에 관해 부연 설명을 해야하거나 막상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 다른 얘기로 흘러버리는 등 사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교 말씀에 관한 감동이나 생각을 함께 공유하며,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받은 은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다양함을 실감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말씀이 다시 나의 감사가 되는 선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부청년회의 좋은 점 두 번째는, 다른 부부들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한 뒤, 같은 공감대와 고민거리를 가진 부부가 모여 교제하니 편안하고 깊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선 부부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고민도 편하게 나누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먼저 결혼한 선배 부부의 모습을 보며 본받을 점을 배우기도 하고, 서로 집에 초대하거나 캠핑하는 등 부부가 함께 어울리는 편안한 공동체가 생긴 점이 참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유치부, 소년부 가는 날 기대

저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락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빠와 함께 '부부성경부'에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 영락교회 교육부를 순서대로 쭉 거쳐왔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같이 수련회를 갔던 친구들은 어느새 20년 지기 친구가 될 예정이고, 대학부에서 진로나 연애에 관해 고민을 나누던 친구들은 각자 비전에 맞게 자리를 잡고 하나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게 주신 큰 선물은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좋은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점입니다.

이제 교육부는 모두 졸업했지만, 앞으로도 부부청년회, 부부선교회 등 부부로서의 신앙과 가족의 터전이 되는 새로운 부서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 자녀가 저와 같이 유치부에 다니고 소년부에 갈 날이 오겠죠? **[만남]**

하나님 말씀처럼 울림 있게… 유튜브 영상 만드는 순수 청년들

대학부 영상 동아리 '레마(Rhema)'

레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

대학부 영상 동아리 '레마(Rhema)'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 만난 레마의 청년들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가치와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며 성장해가는 청년들이다.

레마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생한 말씀'을 의미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는 말씀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단순한 영상 제작을 넘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콘텐츠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생생하고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하며 활동하고 있다.

신앙 필터로 고민한 고퀄리티 영상 업로드

현재 레마는 20여 명의 대학생이 모여 활동 중이다. 이들은 대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 찬양, SMC찬양대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으며, 교회 내 방송실에 갖춰진 전문 장비를 활용해 수준 높은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촬영 후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자막, 음향, 모션 그래픽 등을 입혀 완성도를 높인다.

레마는 대학부 구성원은 물론 전 교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매달 2~3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특히 짧아서 보기 쉬운 솟츠 영상, 후기 콘텐츠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신앙과 일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 교회 안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영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영상 제작 그 이상이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레마의 청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성찰하고 신앙 필터를 통해 바라보며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 끝에 탄생한 영상들은 실제로 교회 안팎에서 감동과 유익을 전하고 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1만 조회 수 콘텐츠 꿈꿔

레마는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며 성장하고 있다. 아직 영상당 1천 조회 수를 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들은 솟즈나 후일담 영상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더 많은 이에게 다가가고자 노력 중이다. 향후에는 1만 조회 수를 넘는 콘텐츠 제작도 목표로 삼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의 전공과 꿈을 영상 활동에 녹여내고 있다.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방윤서 학생(영문학 전공)은 '교회 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하고 싶다는 김태림 학생(건축학 전공)은 '레마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성 학생(기계공학 전공)은 수련회와 선교 후기, 길거리 토크 등 다양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졸업 후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그들과 보낸 두 시간은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았다. 순수한 열정과 진심 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레마'처럼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 **한남**

취재 김대준 기자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친구와 함께한 3박4일 베트남 여행

2016년 어느 날 청년부 예배 후 셀 모임이 끝났을 때, 셀리더였던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인아, 같이 베트남 놀러 갈래?”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고, 아직 해외여행을 갈 정도로 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수락했습니다. 티켓을 예매하고 3박 4일간의 여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관광을 즐긴 후 짧았던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교회마다 걸려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교회 없는 베트남에 복음 전하리라 결심

당시 ‘내가 베트남에서 교회를 본 적이 있었나?’라는 물음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베트남에 있던 3박 4일 동안 교회를 본 것은 하노이 성요셉 성당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평일이어서 그런지 예배

드리는 곳이라기보다 관광지라는 느낌이 더 드는 성당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쉽게 접할 수 있었고, 복음의 소식을 듣는 데 어려움이 없었구나.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도 많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섬기던 교회의 단기선교팀에 들어갔습니다.

공부하던 음악 관두고 신대원 도전

그 후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확신한 저는 공부하고 있던 음악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지도해주시던 교수님께 ‘이제 음악을 그만하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0여 년간 공부했던 음악이었고,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던 저를 아쉬워하며 만류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인아, 신학 공부는 유학 다 마치고 나중에 나이 먹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음악을 그만두면 다시 프로가 되기는 힘들다. 그러니 일단 유학은 마치고 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를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복음을 들고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결단하고, 준비하던 유학을 내려놓고 신대원 입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최 인
전도사
선교부 전담



두 번의 실패…기독의 소중함 깨달아

그러나 신대원 입시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공부하지 않고 급하게 시험만 봤기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험 때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을 치른 후에도 자신 있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과락이라는 제도로 전 과목이 일정 점수 이상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든 과목이 충분한 점수가 나왔지만, 한 과목에서 0.5점이 부족하여 불합격을 통보받게 되어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생각이었나? 뭐가 문제였을까?’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

셨습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뭘 믿고 있니?’ 그때 저는 신대원 시험을 치르면서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만 믿고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깨닫자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 되어, 기도해야 함을 깨닫는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믿어야

그 후 저는 공부하는 중에도 꼭 기도의 시간을 구별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시험을 준비한 결과, 세 번째 도전 끝에 신대원에 합격해 지금은 영락 교회의 선교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저를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맡겨주신 선교부 사역을 감당합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 채 기도로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 뜨거웠던 제65회 산상기도회



올해 8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는 제65회 산상기도회를 지난 4월 21~23일에 열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를 주제로 본당에서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를 강사로 모시고 뜨거운 은혜의 열기 속에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최병락 목사는 총 7번의 설교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써내려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명자로서 성도의 삶을 일깨우는 은혜의 시간을 이끌었다.

첫날인 21일 “반전의 은혜”(빌립보서 1:12, 신명기 7:6~7)를 시작으로, 22일 “동행”(요한복음 14:1~6), “산을 평지처럼 걸어라”(하박국 3:17~19, 스가랴 4:6~7) “한 달란트의 은혜”(마태복음 25:24~29), 23일 “교회를 사랑합니다.”(마태복음 16:18, 애베소서 1:23) “기도의 회복”(출애굽기 17:8~16) “회복의 은혜”(요한

복음 21:15~22)를 주제로 총 7번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영락교회의 산상기도회는 대한민국을 살려온 기도회입니다.](#)”

이제 최병락 목사 인터뷰와 메시지의 맥락을 지면을 통해 간단히 전달해보기로 한다.



주님사랑·교회사랑… 영락, 더 강력한 전성기 올 것

대한민국을 살려온 영락교회의 산상기도회

영락교회가 80주년을 맞은 중요한 시기에 산상기도회
강사로 초빙받으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영락교회의 산상기도회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려온 기도회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올해 영락교회는 80주년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전성기가 80세에 시작된 것처럼 영락교회 역시 이전보다 더 강한 전성기를 맞이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산상기도회에 강사로 초빙받게 된 것은 개인적인 영광과 함께 마음 속에 거룩한 책임감도 컸습니다.

산상기도회 전체 7번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입니다. 즉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기 공로와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로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은혜를 더욱 강조하여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구원, 동행, 기도, 교회사랑의 은혜

일곱 차례에 걸친 설교 중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은?
믿음의 기본을 다시 회복하는 것과 기초가 탄탄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택하여 부르신 구원의 은혜와 동행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교회사랑



의 은혜 등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에,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중에도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매시간 성도님들의 아멘 회답과 은혜로운 찬송소리를 들을 때, 영락의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하는 자의 기쁨으로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집회마다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영락교회의 저력을 보며, 다른 데서는 느끼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설교 후의 박수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영락교회다운 믿음의 저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시어 한국 교회의 모범으로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남**

취재·정리 인미 기자

예배 중 심정지… 골든타임은 5분 즉각 환자 눕히고 심폐소생술 해야

예배 중 응급상황 대처법

심장질환·저혈당·위경련 쇼크 등 빈발
구급차 도착 10~15분 걸리는 경우 많아

예배 당일 컨디션 안 좋은 성도 위해
1층 장의자 바깥자리 건강배려석 운영 필요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예배드리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대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 당뇨병,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출석 교인 중 상기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매 주일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주일 의무실에서 봉사하다 보면, 한 달에도 몇 건씩 예배 중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봉사관 의무실을 방문하시는 분을 만나곤 합니다.

예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심장질환(협심증, 심근 경색증, 부정맥)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 중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했거나 약의 효과가 불충분할 때, 좌측 가슴 흉통이나 어지러움이 발생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저혈압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의식이 있으시다면, 휠체어를 이용해 예배실 밖으로 나오셔서 봉사관 1층에 있는 의무실(02-2280-0165)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둘째, 당뇨병을 앓는 분 중 인슐린을 사용하거나, 식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구혈당강하제만 복용한 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혼미해질 때, 저혈당을 강력히 의심해야 하며 응급조치로 가당 음료 수를 섭취하는 것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응급조치 후에 휠체어를 이용해 의무실로 이송한 후 혈당측정기를 이용해 혈당을 측정합니다.

셋째, 위장장애로 위경련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구토가 발생했을 때, 목 부위의 조여있는 단추를 느슨하게 한 후 심호흡을 돋고, 구토물이 입에 남아 있지 않도록 신속히 제거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이명준 장로
의료선교부장
동대문·중랑교구

심폐소생술 방법

① 의식 확인



흔들어
깨어봅니다

② 도움 요청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③ 기습 압박



본당 100~120회 / 깊이 5cm
강하고 빠르게 30회
기습 압박을 합니다

④ AED 사용



자동제세동기(AED)가
있으면 사용합니다

예배 중 환자이송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안내위원(전도사, 안수집사, 장로) 중 한 사람은 훨체어를 가져오고, 다른 사람은 환자 곁에서 지키다가 훨체어가 도착하면 협력하여 환자를 태우고 예배실 밖으로 이송합니다.

의식은 없으나 자가호흡이 있는 경우

안내위원 중 한 사람은 들것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은 환자 곁을 지키며 자세히 관찰합니다. 들것이 도착하면 환자를 안전하게 눕히고 잘 고정한 후 신속히 예배실 밖으로 이송합니다.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이 없는 경우

환자를 바로 눕혀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한 사람을 지목하여 자동제세동기(AED, 본당 1층에 1대, 50주년기념관에 6대 비치)를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19에 신고하도록 지시합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0~15분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응급구조 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지면을 벌려,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를 예로 들어 환자 발생 시 이송에 유용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위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분 중 건강 상태가 염려되는 경우, 2층에 올라가는 것을 삼가고 본당 1층에서 예배드리되, 중앙부의 장의자 양측 가장자리(건강배려석)에 앉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훨체어나 들것을 이용하여 환자 이송 시, 환자가 좌석 가장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교회 안내 위원들의 안내를 통해 예배 시 건강 상태가 염려되는 분이 보이면 ‘건강배려석 스티커’를 부착한 장의자 양측 가장자리에 착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 건강 상태가 염려되는 분이 보이면 ‘건강 배려석 스티커’를 부착한 장의자 양측 가장자리에 착석할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교회 홍보 및 안내위원의 안내를 통한 시스템을 갖추기를 제안드립니다. **만날**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다시 살아난다”… 부활 소망!

예배위원회



부활주일인 4월 20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 속에 부활절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말씀을 전한 김운성 위임목사는 '마른 뼈에서 군대를 보다(에스겔 37:1~14)' 제목으로 "에스겔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의 삶 속 마른 뼈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다시 살 아난다"라고 부활의 소망을 역설했다.

교육부에서는 부서별로 부활주일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정성껏 준비한 달걀을 나누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베다니광장에서는 문화선교팀 스티그마, 지크로스팀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성도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선사했다. 이날 교회 식당에서는 예수님이 '제2의 생산'을 기념해 미역국이 제공되었고, 예배 후에는 전 교인에게 기념 달걀을 선물로 주었다. 베다니홀에서 기념음악회로 드린 찬양예배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부활주일에 앞서 4월 14일(월)부터 19일

(토)까지 이어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왜 우리는 그 길로 가는가(열왕기상 2:1)', '원수는 따로 있다(열왕기상 5:4)',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다(열왕기상 8:30)', '인생 최고 난제 풀이(열왕기상 10:1)', '주님이 주님이신 이유(열왕기상 12:7)', '죽음에 담긴 은총(열왕기상 17:17~18)' 제목으로 열왕기상 말씀을 전했다. 이를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매일 이어진 생명의 말씀은 어둠에 눌려 있던 영혼들이 빛되신 예수그리스도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고난 속에 담긴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귀한 한 주를 보냈다.



회개, 그리고 구원의 은총… 2025 부활절 음악예배

음악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갈릴리찬양대(대장 박일환 장로)가 준비한 기념음악회가 4월 20일 부활주일 찬양예배 시 베다니홀에서 열렸다. 음악회는 조성환 장로의 지휘, 김우경 집사의 오르간 반주, 오케스트라 알테무지크 서울팀의 협연으로 장엄하고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류주현 아나운서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된 첫 곡 'Miserere mei, Deus(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시편 51편 전체를 가사로 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이어 조셉 마틴(Joseph Martin)의 '성소'가 연주되었는데, 이 곡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 부활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담아낸 우리



에게 익숙한 성가곡들로 구성되어,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음악회 내내 힘찬 박수가 이어졌고, 마지막 앙코르송 '우리를 강하게 하신 주님'이 울려퍼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은혜로 충만했다.

25주기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 열려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김운성 위임목사)에서는 올해 한경직 목사 25주기를 맞아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13일(주일) 기념예배, 18일(금) 오후 2시 영락 교회공원묘원에서 추모예배, 4월 13일부터 한경직목사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기념전시회를 열었다. 기념예배 시 설교를 한 박명수 목사(서울신대 명예교수)는 "한 목사님이 신의주에서 월남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온갖 노력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눈물의 기도 응답으로 이 나라와 영락교회가 세워졌다"는 80년 역사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전했다. 18일(금) 영락교회공원묘원에서 드린 추모예배에서는 최승도 목사의 인도로 한진유 은퇴 장로의 기도, 김운성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경직목사기념관 전시실에서 5월 1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영락미술인선교회의 최진희 권사가 한 목사님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고 그의 신앙적 가르침이 여전히 빛이 되어 흐르고 있음을 유리 작품을 통해 축복의 통로를 표현하여 전시하고 있다.

군부대 5사단 위문… 장병들에게 위로와 용기 전해

안수집사회

안수집사회(회장 목홍균 안수집사)는 지난 4월 5일(토)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휴전선 최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5사단을 위문하며 5사단 내 6개 군 교회 중 단결 약대교회를 방문하여 군 장병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김병학 군종목사가 "세 가지 복(역대상 4:9~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이어 소병훈 안수집사(연대장)의 인도로 북한 땅을 향해 복음통일을 위한 통성기도를 간절하게 드렸다. 이후에는 비무장 지대에서 남북이 대치 중인 GOP 현장을 둘러보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체감했다. 또한 백마고지 조망대와 백마고지 견적비를 견학하며, 장병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자 정성을 모은 위문금도 전달했다.



이번 군부대 방문은 안수집사회가 군선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연례행사로, 인구 감소, 훈련병 감소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군 선교 현장에 대한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젊은 장병들을 위로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군 복음화 사역이다.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출애굽기 3:5, 10)

2025년 영락가족운동회



일시 2025년 5월 17일(토) 9시~16시

장소 대광고등학교

주최 선교부

주관 제1·2·3·4남선교회

후원 제1·2·3·4여전도회, 의료선교부, 안수집사회
권사회, 청년회, 청년선교회, 부부선교회

4남선교회 4여전도회가 함께하는 “The 함께기도회”

4남4여전도회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찬양대에 소속된 자녀의 연습을 기다리는 동안 4여전도회 회원인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 있다. 그렇게 시작된 'The 함께기도회'는 올해부터 4남선교회와 4여전도회가 연합하여 말씀을 듣



고 기도하는 '4남 4여 함께기도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황재영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서는 4남4여 연합 찬양팀의 찬양 속에 3040세대들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서로 축복하며 진솔한 나눔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

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맡겨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4월 기도회(4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50주년 기념관 유치부실)에서는 배우 최강희 자매를 강사로 초청하여 간증을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앞에 모두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서로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캠페인 및 현신예배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어깨동무 후원자모집 캠페인이 4월 27일(주일) 베다니광장에서 열렸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정성스럽게 후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가득 채운 저금통을



주고 가신 분들도 있었다. 영락사회복지재단 현신예배로 드려진 찬양예배에서는 김충섭 목사가 '환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히브리서 13:1~2, 16)' 제하의 말씀을 전했으며, 박홍준 장로(이사장)는 사회복지시설과 직원들을 소개하고 "우리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며, 새로운 시설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통해 사랑과 나눔의 울타리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영락교회 80주년과 함께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도님들께는 사회복지재단을 위한 기도와 관심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창조의 조화를 보여주는 식탁 사랑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되길



키친 테이블

La table de
cuisine

1888~1890 제작

폴 세잔(Paul Cézanne)

폴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과 색을 중시하던 표현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형태와 구조에 집중하며 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 간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시고 만물이 운행되게 하심으로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5월을 맞이하며, 세잔의 '키친 테이블(La table de cuisine)'이 주는 따뜻한 분위기처럼, 영락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남**

* 바로 잡습니다

지난 「만남 4월호」 7쪽 사진에서 '한경직 목사(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를 '한경직 목사(뒷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로 정정합니다.

2025년 5월호 통권 614호

발행 2025. 5.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시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종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



월간 「만남」 e-Book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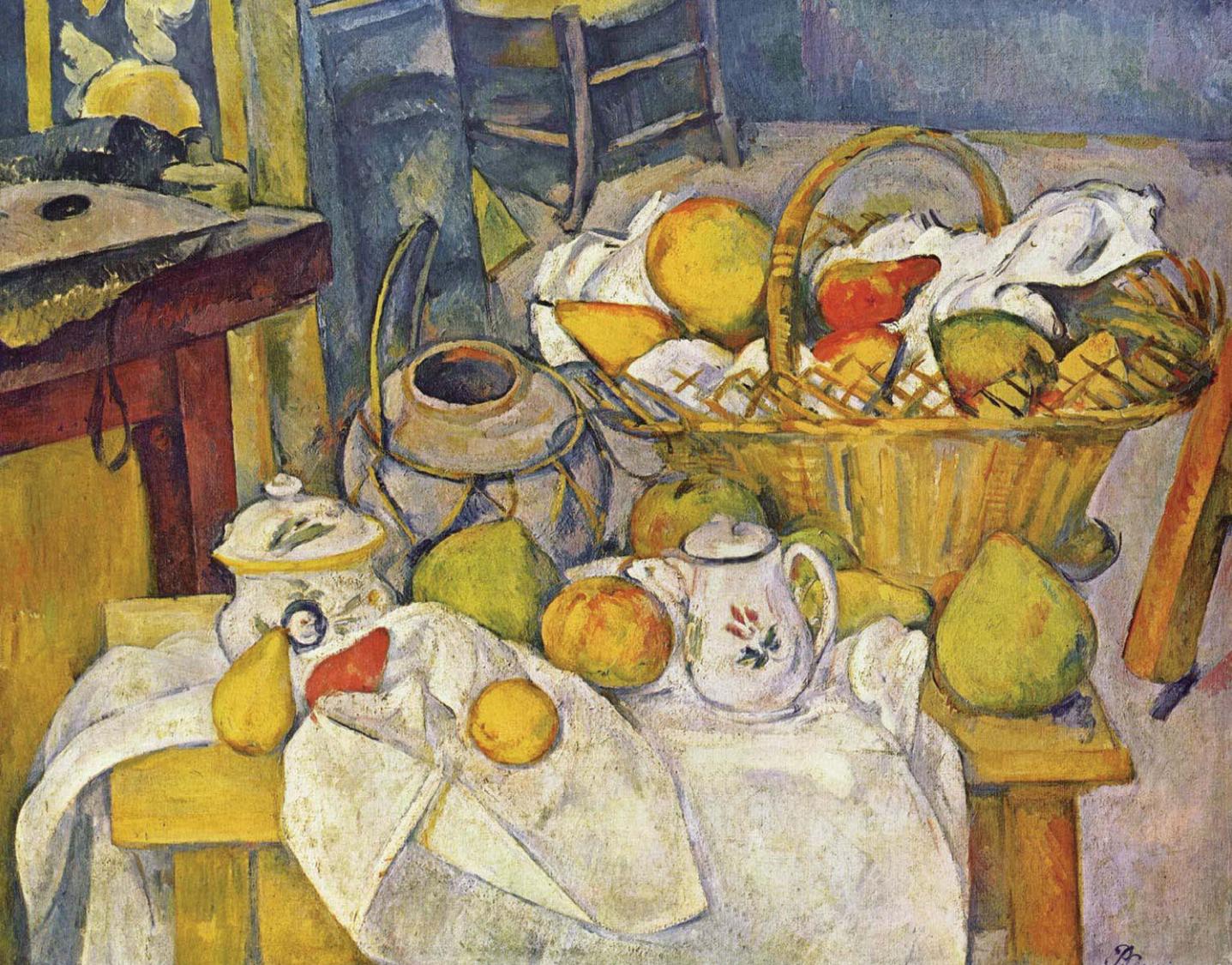
새아기

3월



- 1 우온유(우대권, 조수민 가정)
- 2 김도운(김승범, 권윤경 가정)
- 3 한두림(한승윤, 박지영 가정)
- 4 양태하(양현욱, 천소담 가정)
- 5 이예나(이강범, 임형준 가정)





키친 테이블 (La table de cuisine, 1888~1890)

폴 세잔(Paul Cézanne)

▶ 작품 내용은 56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